

기차 펜션·목조 역사·4인승 철로 자전거 도로

“확~ 달라진 섬진강 기차마을 오세요”

관광용 증기기관차에 몸을 싣고 섬진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이 최근 새 단장을 하고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곡성군은 최근 섬진강 기차마을의 종착역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안된 4인승 철로자전거가 운행하는 철로자전거 관광로도 조성했다. 출발역인 곡성역에는 키 15m가 넘는 50~70년생 소나무 300그루와 장미 1만그루, 14만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이 최근 펜션단지과 목조 역사를 조성하고 생태공원을 꾸미는 등 새롭게 단장했다.

곡성군, 생태공원 등 시설 보완

관광 시너지 효과 극대화 기대

인 가정역에 폐객차를 활용한 기차펜션 등 펜션단지를 조성하고 휴게음식점을 겸한 목조 역사도 새로 건립했다.

전국 최초의 아이디어로 꼽히는 기차펜션은 4량의 폐 객차를 활용한 이색 펜션으로 기차마을의 새로운 명물이 될 전망이다.

또 가정역 인근 잔여 폐철도 2.8km구간을

8천㎡의 유채밭이 어우러진 생태공원이 만들어졌다.

이밖에 2006년 영화 ‘아이스케이’ 촬영을 위해 곡성역사에 지은 세트장에도 도자기 공방, 돌살나이(삼베)공방, 심청 홍보관, 고가 구·농기구전시장, 짚풀공예관이 들어서 종전의 단순한 세트장 건물위주의 관광 개념을 완

전히 바뀌놓았다.

곡성군은 이번에 신설·보완된 관광시설에 기존의 섬진강천문대, 청소년야영장, 섬진강 래프팅 등 관광자원이 더해져 섬진강 기차마을의 관광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달 초 대대적인 공식 개장식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섬진강 기차마을은 1998년 전라선 개량화 공사로 철길 13.2km와 곡성역이 폐쇄되자 곡성군이 2005년부터 폐철도에 관광용 증기기관차와 미니기차, 철로자전거를 운행해 연간 37만여명이 찾는 국민 관광지로 명성을 쌓아오고 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5개 축산 브랜드 225억 지원

전남도, 품질 고급화·규모화 지속 추진

전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순한한우’ 브랜드사업단 등 5개 브랜드에 225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5개 브랜드에는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 규모화, 마케팅, 판매시설 확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경영자금 225억원을 연리 3%에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의 저리로 지원한다.

각 브랜드별 지원액은 서부권 8개 축협의 ‘녹색한우’ 80억원, 동부권 7개 축협의 ‘순한한우’ 62억원, ‘함평 천지한우’ 33억원, ‘영암매력한우’ 31

억원, ‘담양대숲맑은한우’ 19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브랜드 참여농가에 대해서도 축사시설 현대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가축분뇨 처리사업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패키지 방식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 소규모 브랜드를 전남도가 육성하는 명품·광역 브랜드로의 합병하거나 기존 브랜드 상호간 통합 등 브랜드 규모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채희종기자 chae@

해남 우항리 공동화석유적지

화훼·농사 체험 학습장 조성

해남 우항리 공동화석 자연사유적지 일대에 화산 한 불꽃이 심어졌다.

해남군은 공동화석자연사유적지내에 화훼와 농사체험 학습장을 조성



하고 박물관 실내정원 설치, 인공 연못의 수생식물 식재와 대형공공관에 꽃길을 만들었다.

군은 유적지내 도로변에 봄의 전령사인 팬지와 사피니아 1만1천본을 식재하고, 꽃 화분 220개를 설치하는 한편 공동화석자연사유적지내에는 유채, 코스모스, 구절초, 배롱나무단지를 조성했다. (사진) 또 해바라기, 분꽃, 봉송아 등 계절별 꽃씨도 파종할 계

획이다.

한편 우항리 공동화석지는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제 4회 전국 공동대체협전이 열린다. 이번 대체전에서는 공동그리기, 글짓기대회를 비롯해 탁본체험, 공동모형만들기 체험행사, 공동우표전시, 공동영화상영, 마술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화순 모후산 산삼종 복원

화순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려인삼 시원지에 대한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남면 유마리 모후산 일대에서 산삼종 복원행사를 가졌다. 이날 (사) 산삼학회(회장 김용환) 회원 30여 명이 모후산 일대 0.4ha에 산삼종 종자를 파종하고 2~3년생 묘삼 2천600본을 식재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흥 ‘해당산단’ 100억 투자 유치

전기판넬 제조사 ‘안성시스템’과 협약 체결

장흥 해당지구 산업단지가 100억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장흥군은 지난달 31일 인천의 전기판넬 제조회사인 안성시스템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해당지구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투자규모도 100억원대에 달해 앞으로 산업단지내 투자유치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스템은 전기판넬과 수·배전반 설비 등을 생산하는 장흥출신 향우 기업으로 해당지구에도 전기관련 부품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안성시스템은 지난 2003년 기업은행이 선정하는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됐고 올해는 한국전기협동조합의 우수기업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동안 장흥군은 산단조성을 위해 기업지원과를 신설, 전담부서인 산단 조성팀과 투자유치팀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전국의 출향향우 기업인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번이 그 첫 결실을 보게 됐다.

이명홍 장흥군수는 “해당지구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으로는 최초 투자유치 협약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아직 산단조성 공사를 시작도 안했는데 투자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산단이 장흥군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완도군 WHO 건강도시 정회원 가입

완도군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연맹(Alliance for Healthy Cities)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완도군은 1일 “지난달 21일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이 정회원으로 승인해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던 ‘살기 좋은 섬, 건강한 섬’ 완도 실현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위해 건강도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 달 말 건강도시연맹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건강도시연맹은 2002년부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지역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완도군의 비만, 금연, 클러닝 사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스포츠 테마파크, 워터프런트 공원 조성 등과 함께 지역사회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해 노인요양시설과 도서관 복지센터 건립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정회원 가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함평 관덕정 7대 사두

김문호씨 취임



군으로부터 5억원의 예산지원과 함평군의 부지제공으로 준공됐다.

함평 공동인들의 수련장인 관덕정 제 7대 사두(射頭)에 김문호(사진)씨가 취임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이·취임식에는 최철환 전남 공동협회장과 박종태 전 사두, 이석형 군수를 비롯해 공동인과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친선경기도 열렸다.

‘관덕정’은 지난 98년 전남도·함평

김문호 사두는 “함평 공도는 1843년 시작돼 160여년의 역사를 지녔다”며 “공도를 가장 대중적인 심신수양의 무대로 키울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전국 최고의 공동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무등산 자락의 푸른보수 화순 시가지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며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1. 분양대상: 호수, 산, 숲, 강을 품은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며 전원주택을 원하시는 분
 2. 분양지역: 화순시 남면 유마리 모후산 일대
 3. 분양규모: 총 100여호
 4. 분양가격: 1억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
 5. 분양시기: 2008년 4월 ~ 2008년 6월

자원IN 부동산
 화순시 유수소 1431-6070-2

함평의 맛을 이야기하는 **담양산과**에서
시재·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담양산과
 함평전북 061-383-8283 직접주문
 담양시 유수소 1431-6070-2